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39 (하나되게 하소서)	220 (생활한 제물)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63 (온 세상에 전파하리)

입당송 - 시편 67(66),2-3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 1독서 | 이사야서 2,1-5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좌)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우)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
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좌)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우)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 2독서 | 로마서 10,9-1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
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28,16-20

Today's Gospel - Mark 28,16-20

The eleven disciples set out for Galilee, to the mountain where Jesus had arranged to meet them. When they saw him they fell down before him, though some hesitated. Jesus came up and spoke to them. He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s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 them to observe all the commands I gave you. And know that I am with you always; yes, to the end of time.'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의 묵상>

이사야 예언자가 그려 보인 마지막 날의 모습,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거기에서 주님의 길을 배우며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전쟁 기술은 배울 필요도 없고, 칼과 창은 쳐서 농기구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티나의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시대의 그곳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하즈 임금 때는 아람과 북 왕국 이스라엘이 남 왕국 유다로 쳐들어왔고,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히즈키야 임금 때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성읍이 정복되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으나 다른 모든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겪었기에 오히려 전쟁 없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팔레스티나인들이 서로 죽이는 모습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몰아냈고, 중세에는 십자군 전쟁도 있었으며, 지금은 지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유대인들보다 덜 호전적이어서 그들을 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 근본적으로는 같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인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날은 이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를 위한 날이지만, 오늘의 독서를 들으면서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가 참으로 '복음화'되어 주님의 길을 배우고 서로 맞서 칼을 쳐들지 않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 안소근 실비아 수녀님

가톨릭 교리 - 미사 중 '앉음'과 '무릎 꿇음(장궤)에 대하여

○ **앉음**: 미사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앉는 자세는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안정된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기 위한 자세이며, 주의 깊게 듣고 들은 것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삶에 옮길 결심을 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사 중 앉는 것은 "편히 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정된 자세를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 **무릎 꿇음**: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할 때, 또는 무엇인가 간절히 애원할 일이 있을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울러 무릎 꿇는 자세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비를 바랄 때 사용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전례 안에서 무릎 꿇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때는,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나의 잘못과 약함을 인정하는 자세이며, 하느님께 간절히 무엇인가를 청하는 자세입니다. 현행 한국 교회에서 성찬례 때 신자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성찬례 중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파스카 신비의 재현에 대한 공경심과 경외심을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겸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물론 어떤 성당에서는 더 많은 교우분이 앉을 수 있도록, 또는 여타의 다른 이유로 장궤들이 없는 신자석을 사용함으로써 장궤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는 이와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자리는 신자들이 거룩한 전례에 몸과 마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성껏 마련해야 한다. 신자들의 자리에는 원칙적으로 장궤들이나 의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지정석은 두지 말아야 한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11항)."

미사를 봉헌하는 교우들의 자세로 앉음과 장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미사 중에 다른 동작과 자세는 분명 미사 거행의 신비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통일된 자세는 거룩한 미사에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이 이루는 '일치의 표지'이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각을 표현하고 길러주는 역할(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2항 참조)임을 기억하며, 미사 안에서 행해지는 동작에 적극적으로 임해 보았으면 합니다.

- Fr.윤진우 세례자요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Teresa of Ávila) - 기도에 관하여 (1)>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13세기 초 팔레스타인의 가르멜 산에서 시작된 가르멜 수도회를 쇄신함으로써 새로운 카리스마와 더불어 맨발 가르멜 수도회를 창립한 16세기 스페인의 가르멜 수녀였다. 성녀 데레사가 이룩한 수많은 업적으로 인해 그분에게는 창립자, 개혁가, 사모(師母), 신비가, 교회 박사 등 많은 호칭이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톨릭교회는 특히 기도의 스승이란 호칭을 부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만큼 성녀의 모든 활동과 영성의 중심에는 '기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성녀에게 있어서 기도의 여정은 완덕을 향한 여정과 일치한다. 성녀가 자신의 여러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고자 한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기도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성녀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의한 바 있다:

“나는 정신 기도란 자기가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 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성녀가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본질적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향주삼덕(向主三德)을 실천하는 것이자 인간을 다시 하느님과 연결 지어 주는 인격적 관계 맺음의 행위이다. 따라서 기도는 기도하는 이로 하여금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빛으로 서게 해 준다.

Fr.윤주현 베네딕토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2' - 영적독서 모임

- 가톨릭 신앙과 관련한 책을 선정하여, 정해진 분량을 함께 읽고, 나누는 '영적독서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임은 한인성당 Zoom 온라인 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시간이 되신다면 '독서모임' 전 '묵주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기간: 11월 중순부터 시작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성경공부 모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접수는 성당 이메일로 독서모임 **신청자의 성함과 세례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7일**까지입니다.
- * 이메일 주소: canberra.kcc@gmail.com



바오로달공텐츠

2. 로컬 다문화 미사

(South Belconnen Multicultural Mass)

일시: 11월 3일 (주일), 10:00am

장소: 아란다 성당 (St.Vincent de Paul's)

- * 미사 후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 * 로컬 다문화 미사 당일 오후 3시 한인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10월 6일	유아·청소년: 18명	성인: 39명
10월 13일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47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0월 20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다음주 (10월 27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0월 13일)	마태오반
다음주 (10월 20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10월 12일 ~ 10월 18일)

봉 헌 금	\$ 347				
교 무 금	\$ 610				
권모순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투병 중인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